

아동소설에 최고 문학상의 월계관 씌워주다

휘트브레드 최고상 수상한 풀만

김지원 | 출판칼럼니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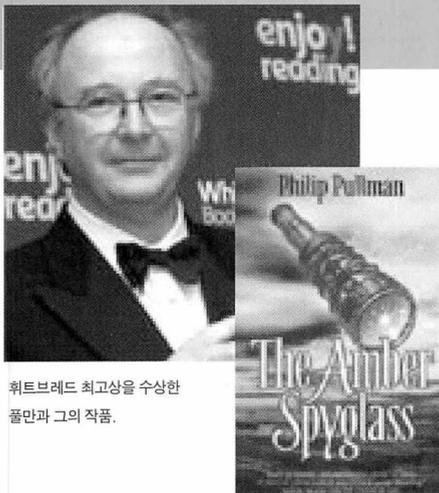
지난달 말, 부커상과 함께 영국 최고의 권위를 지닌 휘트브레드상 수상식장은 흥분과 환희로 가득찼다. 필립 풀만(55)이 휘트브레드 30년 역사상 아동작가로서는 처음으로 영예의 최고상을 받은 것. 라디오 <채널 4> 앵커인 존 스노우를 위원장으로 한 심사위원들 전원 이 풀만에게 월계관을 씌우기로 결정하는 데는 불과 2분여밖에 걸리지 않았다.

다음날 옥스퍼드에 있는 그의 집 오래된 정원엔 몰려든 신문 방송 기자들로 빼곡했다. 50대다운 풍모를 지닌 작가는 기쁘게 한주일을 보냈다. “아동작가, 첫 휘트브레드 최고상 수상”의 머릿기사도 매력적이지만, 그의 문학에 쏟아지는 찬사에는 신선한 기운이 넘쳤다.

신화적 공간 속에 아이들의 삶 담아내

수상작인 《황갈색 망원경 (The Amber Spyglass)》(2000)은 1995년부터 내놓기 시작한 ‘검은 물질’ (Dark Materials) 삼부작 가운데 셋째권이다. 이미 풀만은 첫째권 《북극광(Northern Lights)》(1995)과 둘째권 《예리한 칼(The Subtle Knife)》(1997)로 독자들을 매혹시켰다.

중심인물은 11살짜리 리라와 월. 그들은 환상적인 모험에 나선다. 두 아이들은 성장의 출발점에 있고, 진실을 아는 지식을 얻는다. 삶은 숙명이 아니다.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지식이다. 어린이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인 순수함도 뒤집어진다. 월은 사람을 죽인다. 아이들은 착하지도 못되지도 않다. 등장인물의



휘트브레드 최고상을 수상한 풀만과 그의 작품.

모습은 수시로 변한다. 천사, 요괴, 유령, 갑옷무사 등의 현란한 캐릭터 가운데 인간과 함께하는 동물 모습의 ‘데몬-수호신’을 그들은 소중히 여긴다. 이 수호신은 영혼의 동반자이자 자아의 또다른 변형이다.

‘검은 물질’ 삼부작의 제목은 밀턴의 《실락원》에서 영감을 얻었다. 대작의 뿌리는 양자 물리학에서 고대 노르웨이 전설과 그리스 비극, 밀턴과 블레이크에서 괴테까지 미친다.

풀만은 흔히 톨킨이나 루이스에 비견된다. 하지만 정작 그들에 대한 풀만의 비판은 신랄하다. 《반지의 제왕》은 뛰어난 구성과 무게가 돋보이지만 “인간에 대해 새로운 어떤 걸 말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평범한 소설”이라는 것. 톨킨에게 선은 언제나 선이고, 악은 언제나 악이라는 게 풀만의 시각이다.

풀만은 신에 대한 외경심을 강제주입시키는 루이스도 좋아하지 않는다. 특히 《나니아》에서 아이들의 성숙은 구원을 차단하는 불결한 것으로 치부되기 때문이다.

환상적 상상력으로 최고작가로 떠올라

노르웨이에서 태어난 풀만은 오스트레일리아와 영국으로 삶의 거처를 옮기면서 환상적 탐험으로 자신의 상상을 채웠다. 아이들과 인연을 맺은 것은 옥스퍼드에서 초등학교 교사생활을 하면서부터다. 그의 황폐했던 문학수업 시절은 1996년 카네기상을 받으면서 끝났다. 삼부작의 첫권이 나온 이래 7년간 아무 광고도 없이 <해리 포터> 시리즈의 10분의 1에 이르는 부수가 팔려나갔다.

장터 카펫에 앉은 ‘이야기꾼’을 자처하는 풀만은 이야기의 힘을 믿는다. 13년 전 그는 다섯살 난 아들 톰에게 매일밤 호머의 《오디세이》를 들려줬다. 이야기가 절정에 달하자 톰은 전율하며 손에 든 물컵의 물을 꿀꺽 들이켰다고 한다.

아동소설에 최고 문학상을 안겨준 영국에서 어린이의 문학은 곧 어른의 문학이다. <해리 포터> 시리즈를 읽는 어른에겐 ‘동정과 경멸의 시선’을, 《반지의 제왕》은 이류영화를 위한 완벽한 작품이라는 혹평을 퍼붓는 비평가도 풀만은 아진다. ■

휘트브레드 문학상 분야별 수상도서

소설 : 《Twelve Bar Blues》

(Patrick Neate, Viking)

처녀작 : 《Something Like A House》

(Sid Smith, Picador)

시 : 《Bunny》(Selima Hill, Bloodaxe)

전기 : 《Selkirk's Island》

(Diana Souhami, Weidenfeld & Nicolson)